

## 2012 새해에는

⑦ 조용조 농협 전남본부장

## “농민에 더 가까이…3월 전남 이전”

“사업 신성장 동력확충을 위해 지역분부 윤용체계를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시스템으로 전환해 쌀을 비롯한 전남 농·축산물 매출 3조원 시대를 빠른 시일내에 열어 가겠습니다.”

조용조(56)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유럽발 경제위기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농업인구 고령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새해에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축산물을 더 많이, 보다 안정적으로 팔아 줄 수 있는 ‘판매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애호박·참다래를 포함해 연합사업 품목을 5개 이상 확대 추진해 광역단위 대규모 판매와 마케팅 조직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중앙회 연합사업과 연계한 품목별 공동선별 출하회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 조 본부장은 “무상 학교급식 제도와 연계해 지역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선택과 집중’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며 “도내 윤용체계를 중부권·서남부권·동부권 등 삼각벨트로 묶는 학교급식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광주·전남은 물론 수도권에도 전남 농·축산물이 대량 공급될 수 있도록 하



광역단위 마케팅 조직  
매출 3조원 시대 열것

겠다”고 말했다.

올해 농협중앙회는 50년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의 첫발을 내딛는 뜻 깊은 해이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판매)으로 분리되는 대변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전남지역본부는 3월말에 전남도청이 위치한 남악 신도시로 신사옥을 완공해 이사하게 된다.

조 본부장은 “우리 사회는 정직한 사람과 투명한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정사회로 발전하

고 있다”면서 “정도경영·윤리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농협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본부장은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한편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농업인과 고객, 지역주민과 상생·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조 본부장은 “오래전부터 농촌에서는 두레와 향약 등을 통해 상생·나눔을 실천해왔다”며 “열악한 위치에 있는 농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농협이 적극 나서 나눔을 통한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특히 화합을 통해,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의 ‘화이능취(和以能就)’를 화두로 제시하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든 일이 잘 될거라는 긍정의 힘을 갖고, 농협 본연의 사업을 추진해 조합원과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영광 출신으로 영광 해동고와 농협대학·한국방송통신대(영영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8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고흥군지부장, 영광군지부장, 경제사업 부본부장, 농협중앙회 자재부장, 광주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송기통기자 song@

## 비료업체, 농민들에 1조6천억 덤터기

## 남해화학 등 13개 업체 16년간 가격담합

남해화학 등 화학비료 업체들이 지난 16년동안 비료 가격을 담합해 1조 6000억원이 넘는 돈을 농민들에게 떠기 쌓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남해화학, 동부 등 13개 화학비료 업체가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중앙회 및 협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화학비료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남해화학(점유율 42.4%), 동부(19.

9%), 풍농(10.9%) 등 상위 7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가 밀약에 가담한 셈이다.

실제 2010년 6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듬해 농협중앙회의 맞춤형 화학비료 입찰에서 낙찰가는 전년보다 21% 낮아졌다. 농민의 화학비료 부담액이 1022억원 감소한 것이다. 담합이 없었다면 그만큼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과징금은 남해화학이 502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동부 170억원,

삼성정밀화학 48억원, 케이지케미칼 42억원, 풍농 36억원, 조비 18억원, 협화 10억원 등의 순이다.

이들은 매년 농협중앙회의 화학비료 입찰에서 품목별 낙찰률을 배분하고 가격을 미리 짚는다. 2004년 특정 비료 입찰에서 남해화학과 동부는 합의물량 44만t을 각각 66%, 34%로 나누기로 하고 가격을 합의했다.

연초조합이 밭주한 죄자가 낙찰방식의 입찰에서는 동부를 낙찰자로 정한 다음 물량을 점유율에 따라 배분하고 동부에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납품하는 수법을 썼다.

또 오는 31일까지 광주은행 본점 PB센터와 상무 PB센터, 하남공단지

## 13개 단지 중소형 위주…첨단2지구 활기

올해 광주지역에 민간아파트 1만여 가구가 새로 공급될 전망이다.

15일 광주지역 생활정보신문 ‘사랑방신문’이 주요 주택건설사를 대상으로 올해 광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모두 13개 단지에 1만460가구를 분양할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북구 신동동 일대에 조성 중인 첨단2지구의 분양이 활발할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은 지난 10일 첨단2지구 4블록과 8블록에 ‘첨단2지구 호반베르디움’ 1368가구 공급을 시작, 올해 분양시장의 문을 열었다.

중흥건설도 첨단2지구 A5블록에

전용면적 84㎡ ‘중흥 S-클래스’ 772

가구 분양을 검토 중이고, 부영주택은 선 시공 후 분양 아파트로 내년께

공급할 예정이다.

진아건설은 오는 3월 16일 첨단2지구 A2블록에 ‘첨단2지구 제일 풍경재 리버뷰’ 613가구를 분양한다.

중흥건설도 첨단2지구 A5블록에

전용면적 84㎡ ‘중흥 S-클래스’ 772

가구 분양을 검토 중이고, 부영주택은 선 시공 후 분양 아파트로 내년께

공급할 예정이다.

진아건설은 오는 3월 광산구 수완

지구에 ‘수완2차 진아리체’ 138가구

를, 선운지구에 상반기 중 전용면적

## “맛과 멋이 활짝 피었습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고광후)은 설을 맞아 지하1층 식품매장 박찬희화과자코너에서 알록달록 예쁘고 맛있는 화과자를 선보이고 있다. 방부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천연의 높은 당도로 부드럽고 달콤함이 특징이며, 화과자 5호 39000원, 7호 52000원, 9호 78000원.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光銀, 수수료 면제 등 설맞이 사은행사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설날을 맞아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민의 금융권의를 위한 수수료 면제 및 현금 보관업무 등 다양한 고객 사은행사를 실시한다.

‘창구 효도송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는 27일까지 은행 창구에서 부모님께 100만원 이하 효도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또 오는 31일까지 광주은행 본점 PB센터와 상무 PB센터, 하남공단지

점, 순천지점, 목포지점 등 5개 부점에서 통장·증서·유가증권 등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대여금고를 무료 제공한다.

고객들의 현금소지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지역은 본점 영업부, 송정지점, 북부지점, 신세계지점, 각화동지점에서 전남은 순천, 목포, 여수지점 등 8개 영업점에서 현금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2012년 광주 아파트 분양 예정 현황

건설업체	아파트명	위치	전용면적 m <sup>2</sup>	가구	분양일정
호반건설	첨단2지구 호반베르디움	첨단2지구 4·8블록	84	1368	1월10일
디엠산업개발	첨단2지구 한양수자인	첨단2지구 8블록	65, 84	1254	2월 초순
광명주택	주월 광명메이루즈	남구 주월동	84	340	2월
대방건설	하남2 대방노블랜드	광수구 신정동	107~155	572	2월
한국건설	봉선 한국아يل리움3차	남구 봉선동	85 이하	280	2월초
세움건설	미정	동구 월남지구	112	540	3월
제일건설	첨단2지구 제일풍경채	첨단2지구 2블록	60~84	613	3월16일
진아건설	수원지역 진아리체	수원지구 C12-5	108	138	3월
현대건설	화정 주공 선수촌(가칭)	서구 화정동	59~110	3727	5월
SK건설	상무 SK뷰티풀	서구 미륵동	40~115	536	올해말
중흥건설	첨단2지구 중흥 S클래스	첨단2지구 5블록	84	772	올해말

84㎡ ‘선운 진아리체’ 32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이밖에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될 화정주공재건축 단지는 모두 3726가구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1000여 가구를 5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박정숙기자 jwpark@

## ■ 주간 증시 포커스

## 기계·조선·화학 단기매매 ‘효과’

코스피는 다시 박스권 상단인 1900선 부근에 진입했다. 불안정한 유럽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외변수들이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견조한 흐름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저금리 기조와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물론 2월 이후 도래할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유럽국의 대규모 국채 만기 앞두고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유럽 정상들의 사태해결 노력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프랑스 등 9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에 시달릴 것이다.

국내 증시는 유럽계 은행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자금 유출에 나서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태가 예상됐다는 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오는 18일 영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20일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의 주요국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가 속도될 예정이어서 당장 악재로 부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7개월째 이어진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는 만큼 코스피 박스권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결안에 대한 기대감, 중국 정책 관련 모멘텀이 박스권 하단을 견고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본격 주가 방향성은 설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에도 제한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식시장은 IT와 일부 중소형 주 중심의 제한적인 상승 흐름에서 벗어나 가격 메리트와 정책변화 모멘텀에 따른 업종별 매기 확산 조짐이 강화되는 층면이 있다.

이번 주에도 미국 경기 회복세와 국내 기업들의 2012년 이익 모멘텀을 고려해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종목군은 조정시 매수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격 메리트와 중국의 정책변화 가능성 층면에서 기계, 조선, 화학 등 경기 민감 쪽 대표주 중심의 단기 매매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는 유럽계 은행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자금 유출에 나서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태가 예상됐다는 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오는 18일 영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20일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의 주요국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가 속도될 예정이어서 당장 악재로 부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7개월째 이어진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7개월째 이어진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7개월째 이어진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7개월째 이어진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7개월째 이어진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7개월째 이어진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7개월째 이어진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7개월째 이어진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7개월째 이어진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7개월째 이어진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